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 기 불 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권중서, 이기원, 양지현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257-1083 • FAX/ 031)251-1779 • http://www.paragate.org • E-mail : budsos@paragat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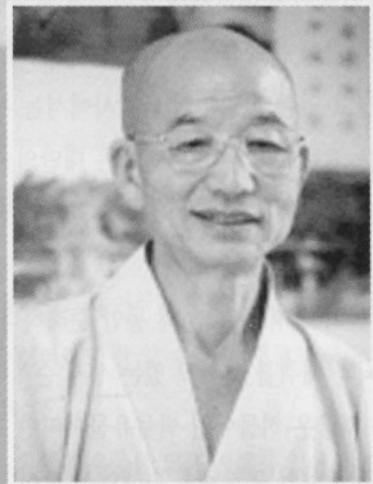
백신에게 듣는다<스물한번째>

정무스님 초청 송년 · 수계법회

- 주제 : “본성 회복”
- 일시 : 불기2548(2004)년 12월 18일(토) 오후3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정무스님 약력

- ▶ 1958년 은적사에서 전강선사를 은사로 사미계 수지
- ▶ 1962년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스님을 법사로 대교과 수료
- ▶ 1963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 1971~2001년 수원 용주사, 여주 신륵사, 이천 영월암 주지를 역임
- ▶ (現) 안성 석남사 회주



12월 사찰환경 답사

경북 예천

김용사 대승사 용문사

- 일 시 : 불기2548(2004)년 12월 19일(일)
- 출발지 : 오전7시30분 경기불교문화원 앞
- 동참금 : 30,000원 (중식/간식/여행자보험/사찰입장료 포함)

12월 초

불기2548년(서기2004년) 12월 (통권 제16호) / 매월 1일 발행(월보)



송년사

갑신년을 되돌아보며.....



경기불교문화원장 진 철 희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각 나라의 불교성지를 순례하다보면 나라별로 부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순례단에게 보여주며 불심을 심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불족산에서 서기를 받아 시작된 갑신년 해외 성지순례가 중국오대산 문수사에서 문수보살님의 화현으로 초심을 붙잡고 있는데 일본의 금각사에서는 부처님상이 금빛으로 비천하신다 하여 현해탄을 건너가 이웃나라의 불교를 체험하고 숨을 고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만의 불광산사와 자재공덕회에서 포교와 자원봉사님들의 자리이타 정신이 전 세계에 있는 불자들에게 붓다의 메아리가 들려와 잠시 화엄경에 나오는 불국토와 삼천대천세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의 성지를 여러 해 동안 순례하다 보니 이제는 단순히 과거에 지었던 탑이나 건물을 보기 위함 보다는 실제 부처님의 고뇌와 체취를 느끼고 있는 성지 순례라야 진정한 순례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허물어진 벽돌유물이지만 그 흔적 속에 담겨져 살아있는 부처님의 고뇌와 체취를 느낄 때 우리는 진정 2600년 전에 살았던 부처님을 현세에서 다시 만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불교문화원에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부처님 성지순례를 배낭으로 하는 것도 이런 연유와 관계가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체취를 맡으며 그곳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경전을 독송해 보면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가 새롭게 변화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세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뇌와 어려움에 대해 새롭게 열리는 마음의 세계가 과거의 부처님의 고뇌와 어떻게 달랐을지도 생각하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순례의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다시 결망을 메고 부처님의 체취를 맡으면서 떠나갈까 합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실시되는 “부처님 발자취 찾기” 순례는 경기불교문화원이 추진하는 가장 긴 시간으로의 여행이며 순례입니다. 부처님의 출생에서부터 열반에 이르는 과정을 한 발자국도 빠트리지 않고 체험하기 위해 떠나는 순례단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기불교문화원이 여기까지 오게 되도록 도와주신 선후배·친지·후원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갑신년에 못 다한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함과 올 한 해 동안 땀 흘려 이룩한 소중한 결실들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밝아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경기불교문화원 가족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금당 합장 **경기 불교**

한방갈비 전문점 고향숯불갈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다도교육생모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기초반)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중급반)

매월 둘째 네째 토요일 오후2시(사범반)



통권 16호
수미산

인생의 방정식은 삶의 지혜다!

보현진열 / 감로향사 분향주

해마다 동지를 맞으면, '아, 또 한 해가 저물고 새 해가 오는구나' 하는 나이 먹음과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곤 한다. 특히 올해는 경제 불황에 고통이 많은 해이다 보니, 다사다난한 상처가 유독 심했다고 여겨진다.

인사(人事)가 모두 인간사라고 하면, 어제 오늘의 우리들의 문제란 결국 우리들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말은 그렇게 하나 사실 그 문제의 내막은 참으로 복잡하다. 모두 자신의 밥그릇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류사란 것이 밥그릇의 문제와 연관된 이모저모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활동이란 것도 사실 그것의 연장과 확장에 있다. 학교를 다니고 과외를 하고, 좋다는 대학을 다니려고 하고, 직장에 입사하려는 것 등이 모두 '질 좋은 밥그릇 찾아가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역사와 문화란 것은 그것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장식된 화려한 장엄(莊嚴)이다. 상품이 그릇이라면 문화란 포장이다. 포장된 상품이 우리의 삶이다.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동물의 왕국'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생물의 생태다. 여기엔 언제나 생존의 법칙이라 할 정치적인 파워게임이 존재한다. 치열한 우승열패가 있을 뿐이다.

식물이나 동물은 그냥 그런 자연 법칙에 맹종해서 생사를 거듭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연과 우주를 읽는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적어도 동양의 선인들은 단순한 밥그릇 타령에 머물지 않고 우주 철학의 사색에로까지 펼쳤다.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약속 강식하는 생태계에 어떤 운명적인 법칙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보이는 것 너머에 미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빚어지는 미처 모르는 관계의 영향이 우리에게 운명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미지수(未知數)에 선현들은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다.

그 미지수를 알려고 노력한 학문적인 열매가 곧 우리가 아는 사주학(四柱學)이다. 사주에 의해 우리들의 삶의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고, 그를 통해 인생의 행복을 가꾸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한 인생, 이것은 우리들의 목표이자 꿈이다. 누가 불행이나 실패를 원할 것인가?! 하지만 우리 주변에 불행과 좌절의 인생이 있음은, 모두 우리의 노력에 있다기보다는 저 사주학의 방정식에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 방정식을 알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인생의 방정식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사주학 공부다. 우리 인생은 모두 사주 안에 들어 있다. 그 방정식을 알고 분수대로 살아가면 행복해질 수 있으며 반대로 나아가면 그 인생은 실패로 마치고 만다. 지금과 같이 미래에 대한 자신이 서지 않을 때는 한번쯤 사주학을 공부하는 것도 이로울 것이다.

경이
들교

가바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사다리
031)297-2000 / 011-733-1985

웹빙요가

매주 화,목요일 오전10:30 (개강:1/13)
강사 : 최윤규(인도요가지도자과정 수료)
기간 : 3개월과정(90,000원)



현대인과 사성제



도성스님

해 인사 선방에 있을 적에 절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데 문헌에 나오길 “오체투지”하고 ‘부처님을 받들고 같이 한다.’ 라고 나온다.

오체투지라 하면, 무릎에서부터

팔꿈치에서 끝까지 이마를 대면 오체투지가 되는데 부처님을 받들고 같이하라는 것은 교시를 하는 데가 법에 없다. 그때에 작년에 입적하신 서옹스님이 말씀하시길 일본 임계종에서는 절을 하고 손을 살짝 뒤집어서 들더라. 그것밖에 우리나라엔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나라에서 뿐이지, 일본에서는 여러 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지를 않는다.

어느 절에 스님이 한탄을 한다.

“자기는 글씨를 이렇게 잘 쓰는데도 복이 없어서 돈이 없습니다.”라고 한탄을 한다.

스님은 본래 부처님이 돈을 갖지 말라고 했는데 그 돈이 없는 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욕심이 짝 차서 돈을 받으려고 하니깐 안 가져가는 것이지, 그 좋은 글씨를 왜 안 가져가겠는가!?

덕이 있어야 가져가는 것이지 어느 누가, 그 욕심 많은 것을 가져가려 하겠는가!?

부처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량없는 복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다주고도 남을 복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물질적으로 돈을 가지려하느냐 그것은 부처님의 복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밥 안 먹어도 좋고 돈과 명예가 없어도 좋다. 부처님 법에는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소유다. 항상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혜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깨쳐야 아는 법은 알 필요가 없다. 나중에 깨치는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아는 법이 진실 된 법이다.

부처님의 이유 없는 말씀이 무엇인가. 중생들의 눈을 뜨도록 만드는 것이 법이다.

내 마음은 내가 찾으라고 했다. 여러분들은 신심으로 많은 실천을 하고 있다. 내말을 듣기위해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는 졸리게 되고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된다.

앓, 알아차림이란 의미의 ‘사피’는 부처님 법 중 가장 으뜸인 것이다. 부처님 말씀 중에 “진리를 따라서 나아가는 자는 악의 세계에서 멀어지게 되어있다” 라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진리라고 하는가!? 이 세상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는 것이며 진리에 어긋나게 되는 법이 없다. 부처님 법을 따르고 있는데도 악의 세계로 떨어진다 하는 것은 행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거나 다른 법을 행하고 있는 것과 같다. 마음에 번뇌망상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 “신수신법”이라는 말이 있다. 몸에 느낌이 오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느껴지는 것은 마음이 바로 그곳에 갔기 때문이다.

느낌을 아는 사람이 마음을 볼 줄 아는 자다. 마음이라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거나 색깔이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다. 육근으로 작용하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 눈에 가면 볼 수가 있고 귀에 가면 들을 수 있고, 코에 가면 맡을 수가 있다. 밥 타는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그제서야 맡을 수가 있는 건 마음이 가지 않았기 때문과 같음이다. 항상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있으니 이를 정진하는 방법이 바로 위빠사나 수행법이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의 말을 들으려 하고, 그의 말을 듣는 귀에 마음을 두는 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 몸, 이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 다.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주인노릇을 하는 것을 다스려 쫓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지 어느 누가 나의 주인이 되겠는가..... 몸은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야지 마음이 하자는 대로 못하고 몸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 병고에 시달리게 되고 고통만 가져오고 망상은 떠나지 않게 되니 조금도 정진해 나갈 시간이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마음집중이라는 것이 망상을 다스리는 데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은 기운이 있어야 산다. 호흡에서 생기는 것이 기운이다. 밥에서 생기는 기운은 호흡에서 생긴 기운이 모자랄 적에 쓰는 기운이며, 또한 그것조차 모자랄 적에 약의 기운을 이용한다. 밥을 어느 정도 먹어야하는가에 대해 부처님 말씀하시길 맛을 즐기기 위함도 아니요, 배불리 먹기 위함도 아니요, 몸을 살찌우기 위함도 아니요, 보기 좋게 가꾸기 위함도 아니다. 다만 최소한의 영양공급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이 몸을 유지하여 청정수행을 돕기 위함이니라.

부처님의 법은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로운 게 부처님의 법이다. 출가한 사람이든 아무리 법이 높은 사람이든 부처님 법을 행할 시에 그것이 부처의 법이고 부처의 법을 어길 시에는 어느 누구든 잘못된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삼보를 행하고 존경하고 따르면 부처님의 법이 들어오고, 그 복은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게 되고 완전하게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사주팔자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부처님의 법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없어진다.

법고



변호사 조복홍

031)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양재홍 치과 의원

사무실 : 241-1004 /

원장실 : 248-1616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II)



가섭스님 / 본원 경전강좌 강사

2. 경의 성립과 유통

원각경은 북인도 계빈국(屈賓國)의 승려 불타다라(佛陀多羅:覺求)에 의해 A.D. 693년에 漢譯된 것이다. 이 경은 중국과 한국에서 주요 경전으로 크게 유통하였다. 특히, 고려의 지눌(知訥)이 이 경을 중시하여 요의경(了義經)이라 하여 퍼뜨리기 시작하여, 조선 초에 함허(涵虛)가 《원각경》 3권을 지으면서 한국 불교 전문강원(專門講院)에서의 승려의 교과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유마경(維摩經)》 《능엄경(楞嚴經)》과 함께 선(禪)의 3경(經)이며, 이에 대한 주석서(註釋書)로는 (1) 대방광원각경疏 12권, (2) 대방광원각경略疏 2권, (3) 대방광원각경大疏科 2권, (4) 대방광원각경略疏科 2권, (5) 대방광원각경大? 13권, (6) 대방광원각경略? 6권, (7) 대방광원각경도량수증의 18권, (8) 대방광원각경예참약본 4권, (9) 대방광원각경도량육시에 1권등 9종이 있다. 한국의 경우 (1) 涵虛 得通禪師의 원각경소 3권, (3) 有一의 圓覺私記 2권, (3) 義沾의 원각경 사지 1권등이 현존한다. 특히, 조선시대 세조 때 한글 창제 후 惠覺尊者 信眉스님과 효령대군 및 한계회 등이 왕의 간경도감에서《圓覺經諺解》(1465년 발간)가 발간되기도 하였다. 현존 경판은 1588년 청도군 운문사(雲門寺)에서 판각한 경판이 보존되어 있고, 1611년 하동 쌍계사(雙溪寺) 판과 1655년의 순천 선암사(仙巖寺) 판각의 경판이 보존되어 있다.

3. 경의 대의와 사상

원각경은 1권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序分에서는 경의 연기를 밝히고, 이어서 正宗分에서는 문수보살부터 원각보살에 이르기까지 11명의 보살들이 차례로 11장에 걸쳐 부처님께 원각 수행 방법을 묻고 들으며, 열두번째 《賢善首菩薩章》으로써 流通分을 이룬다.

원각경은 문수보살을 비롯하여 열두 보살이 부처님과과의 문답을 통해 무명을 끊고 불성을 드러내어(斷無明 顯佛性) 본래성불인 원각수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각경 12장의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문수보살이 천진을 요달하다(文殊達天真)
- ② 보현보살이 연기를 밝힌다(普賢明緣起)
- ③ 보안보살이 관행을 묻다(普眼問觀行)
- ④ 금강장보살이 세 가지 미혹을 분별하다(剛藏辨三惑)
- ⑤ 미륵보살이 윤회를 끊다(彌勒斷輪廻)
- ⑥ 청정혜보살이 수증의 계위를 나누다(淨慧分證位)
- ⑦ 위덕자재보살이 세 가지 관을 일으키다(威德起三觀)
- ⑧ 변음보살이 홀과 겹으로 닦다(辯音修單複)
- ⑨ 정제업장보살이 네 가지 상을 없애다(淨業除四相)
- ⑩ 보각보살이 네 가지 병을 여의다(普覺離四病)
- ⑪ 원각보살이 세 기한에 참회하다(圓覺三期懺)
- ⑫ 현선수보살이 경의 유통을 간정하다(賢善請流通)

12

파스타 하우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동 1-5
중동BD 2F T.031-255-8843

세무사

전 종 환

TEL. 031)246-1177
FAX. 031)257-5533

옛날 낙수리

<낙지한마리 수제비>

낙수리해물탕 · 아구탕 · 낙지전골 · 해물파전 · 낙지찜

대표 주 희 연

체인점 문의 및 예약 244-8206 / 247-8716



강화도의 공간

이 해 중 / 본원 사찰답사반원

이른 아침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움츠린 몸과 마음을 싣고 “무애원”으로 향한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차창유리의 성애 속에 어렴풋이 보이는 아침의 풍경이 오늘도 하루를 기대며 피곤하고 한주일 동안 세상살이와 씨름하고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맞이하는 해병대 군인들과 설봉스님의 소개 말씀으로 복잡한 마음을 가다듬고 귀를 기울인다. 생각하는 마음보다 먼저 행동으로 실천하는 말씀이 무엇보다도 큰 스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잠시 후 법사님의 말씀에 “업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다. 나는 불교에 대해서 아는바가 없다. 그러나 법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에 아는 바로는 불교에서는 마음“심” 하나만 가지고도 불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 그것은 인간의 도의적이고 평범한 인간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청순한 마음으로만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만 했을 뿐 행동으로는 과연 얼마나 행하여진 것일까? 그것은 마치 기초가 되어있지 않은 공사와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부처님의 진리와 깨달음의 토대위에 비로소 진정한 불자의 길을 갈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업”이라는 것은 일생에 흔적을 남겨놓는 기록이며 지울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것은 평범한 한 인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악마의 존재와 같이 욕심, 질투, 시기, 망각 등등이 나의 업을 그르쳐 버리고 전등사에서 보아온 “명부전”에서 대왕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더 할 수 있는 업을 남기고 생을 마칠 수 있을까?!..... 다 못할 때에는 후생에서?!.....

흔히 쓰는 말로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자주한다. 그렇다. 마음을 비우자. 그 빈곳에는 부처님의 진리 속에 아름답고 좋은 것만 채워지리라.

냉기에 불어오는 세찬 바람 속에 아물거리는 저 건너 북쪽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지내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듯이 하루 역시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순간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아픔이 그러하듯이 그들은 어떠한 아픔일까?

정신적인 고통일까! 아니면 육체적인 아픔일까! 혹시 목적이 없는 생활일까? 몹시도 괴롭다. 한 병사의 월남실패의 이야기를 전해들을 때 지금 그 병사의 갈등은 어떠한 까?

말없이 흐르는 저 강물은 흘러흘러 저 넓은 바다로 무엇인가 꿈을 안고 가건만, 다가오는 강추위에 부디 몸과 마음이 평안함을 기원하면서 흔들리는 차 창가에 저녁 노을이 지고 강화도를 등지고 곽차한잔을 기울이니 온갖 세상이 평안해지고 곽차의 포로가 되어 모든 것이 허전한 빈 공간 속에 사라진다.

강화도



11월 후원회비 내주신 분들 (11월1일~11월30일)

정성어린 후원금 감사합니다.

김태제 최명길 김영희 조창윤 권중서 이기원 안영찬 김대성 김정수 김용필 이남덕 양황경 배민한 문양순 서의호 박종근
진철희 김미월 이대곤 강영진 이상범 이임성 이영옥 김명동 이태순 진상범 김순옥 김정숙 양정례 정현숙 조권형
박경아 이기순 김순자 진주범 강재수 김말수 주영월 이난호 이태갑 진기홍 김준호 염규용 심화식 차용희 임장근
장용집 이선우 김의순 윤영무 김기현 이옥자 최정자 박선현 송호윤 민춘홍 현병국 이병일 한혜승 이상님 윤기수
홍인숙 권승하 양준영 정무근 구광국 김준옥 장옥훈 김은주 윤영예 조명숙 박청용 조병희 조남중 정경화 주인수

(76명)

(2,412,300원)

KTF 신영통 전속대리점

011, 017번호 그대로 가입하세요

031-255-5800

대표 안 창 호

Phone A/S대행 신규가입,
요금수납, 기기변경
명의변경, 보상판매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경기불교 소식

● 백인에게든다(스무번째)

수원지역의 불심을 심어주는 기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인에게든다”의 스무번째 법회가 11월 13일 둘째주 토요일 오후3시에 도성큰스님을 모시고 본원대법당에서 ‘현대인과 사성제’란 주제를 가지고 여법하게 열렸으며 미수의 나이에도 맨발로 정진하시는 스님의 모습에 많은 불자들이 웃길을 여미게 하였습니다.



● 11월 사찰환경답사

설봉스님이 운영하는 강화도 무애원·민통선 탐방과 전등사 고찰을 답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외포리 포구에서 바다 내음새로 마음껏 취하고 돌아왔습니다.

● 대만 성지 순례

본원 진철회원장님과 권중서이사님이 대만불교의 포교방법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사항을 견학하고자 10월18일~21일(3박4일간) 대만 금광명사, 불광산사, 자재정사, 자재공덕회, 복산사 등을 순례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달 행사안내

● 승산당 행원 대중사 원적

승산당 행원 대중사의 영결식이 2548(2004)년 12월 4일(토) 오전10시30분에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제2회 후원자의 밤 개최

제2회 경기불교문화원의 「후원자의밤」이 2548(2004)년 12월6일 오후6시30분부터 9시까지 신흠부페에서 열립니다. 1년 동안 본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신 강사님들과 후원자님들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설봉스님의 생활도자기 바자회

물품 : 서예품, 생활도자기 등
일시 : 불기2548(2004)년 12월 18일 오후1시부터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 인도 8대 성지 걸망순례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불기2548(2004)년 12월23일~2549(2005)년 1월11일(19박20일)동안 진철회원장 외 16명의 순례반원들과 함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 8대성지를 걸망으로 순례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2005년 1월 사찰환경답사”는 1월 16일(세번째 일요일)
스물두번째 “백인에게든다”는 1월 22일(네번째 토요일) 오후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3~5개월 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 교 강 좌	불교의식반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 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수시
	기초교리	전문법사	3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수시
	경전강좌	가섭스님	30명	10주 90,000원	원각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육조단경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미술의 이해	권중서	20명	3개월(12주) 90,000원	한국 불교미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수시
	불교문화대학	대덕스님	40명	4주 50,000원	불교전문인 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문 화 강 좌	요가반	문명순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요가(주2회)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	수시
		최윤규			웰빙요가(주2회)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30분	1월 13일 개강
	단전호흡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전호흡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수시
	우리춤 배우기	이순자	20명	5개월 100,000원	기본무, 살풀이, 한국무용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수시
	다도기초반	권섭순	20명	3개월 90,000원	다도 기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수시
	다도중급반	윤영예	20명	3개월 90,000원	다도 중급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수시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00,000원	역학, 운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수시
	중국어회화	최경희	20명	3개월 60,000원	생활중국어 회화	매주 월/수요일 오후 4시 30분	초, 중등생 / 수시
	영어회화	박영희	20명	3개월 60,000원	생활영어 회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주부반 / 수시
	경락반	고철성	20명	3개월 60,000원	한방경락, 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백인에게 듣는다	대덕스님 교수진	100명	무료	열린법회	매월 3주 토요일 오후 3시	12월 18일 오후 3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30,000원	경복예천 (김용사, 대승사, 용문사)	셋째주 일요일 오전 7시30분	12월 19일

■ 회원가입안내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등"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본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 중등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이나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TEL. 031-251-1083/ 257-1083 FAX. 031-251-1779